

광주농협·교육청 “3월14일 백설기데이”...떡 나누며 쌀소비 촉진

화이트데이 대신 백설기떡으로 사랑을 전달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 할 것”

농협광주본부는 13일 백설기데이(3월14일)를 앞두고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교육청에서 직원과 시민들에게 백설기 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성신 농업 광주본부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내춘 농협은행본부장, 북광주농협 구상봉 조합장, 통합RPC 이선학 대표이사, 한제규 노조지역위원장, 교육

청, 농협 임직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화이트데이(3월14일) 사랑 대신 우리쌀로 빚어 건강한 음식인 백설기떡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백설기 데이'를 홍보했다. 또 소비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사랑의 장미꽃 전달과 광주대표 브랜드인 빛찬들 쌀 홍보 및 쌀 소비촉진

운동도 함께 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식생활 변화와 다양한 대체 식품으로 쌀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쌀 산업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농협은 백설기 데이와 가래떡 데이 등 다양한 우리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설기데이는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에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고받자는 의미에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매년 3월 14일을 지정한 기념일로 올해 12회째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섬진강서 어린 연어 50만 마리 방류 ‘이석 온도자극 표지 방류’로 회유 경로·계군 분석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9일 구례 간전면 섬진강 동방전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연구 활용을 위한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울해로 26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구례군 유관기관, 지역 주민, 초·중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어린 연어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긴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지난해 10~11월 섬진강으로 회귀한 어미 연어 457마리를 포획, 직접 알을 채취해 부화시킨 것이다. 방류한 어린 연어는 섬진강에서 40여 일간 적응한 후 남해와 동해를 거쳐 마나먼 북태평양 해역까지 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 연어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60~100cm로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고향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대표적 회귀성 어류다. 특히 올해는 ‘이석 온도자극 표지 방류’ 연구로 생산한 30만 마리를 포함하고 있어 회유 경로와 계군 분석 등 연어 연구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있는 방류였다. 표지 방류 연구 결과는 올해 방류한 연어가 어미로 성장해 회귀하는 3년 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섬진강 생태계 대표 지표생물인 연어자원 보존은 물론 사라져가는 섬진강 토종 생물 연구와 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 관광객 1억명 시대 앞장 회장 이취임식...친절한 미소·감동주는 해설 다짐

전남도는 최근 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가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열어 친절한 미소와 감동주는 해설로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연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장,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임 회장인 장재호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지지



서 고품격 해설서비스로 전남의 매력을 알리는 문화관광해설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이 국내를 넘어, 세계 속 관광 1번지로 거듭나는데 기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15파전 광주시·전남도 “균형발전 최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전국서 20곳 공모...반도체만 15곳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민선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공모전이 예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0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화단지 공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분야로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만 15개 지자체가 신청해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반도체 특화단지 경쟁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남양주·화성·용인·이천·평택·안성과 인천, 대전·충북·경북·경남·부산 등 13곳이다. 이 중 삼성전자가 팹릭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도 7개 지자체와 인천은 ‘수도권’이며,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전·충북·경북·경남·부산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개편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서선욱기자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가장 발 빠르게 지난해 7월 김영록 전남지사과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건의문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명시한 비수도권인 광주·전남을 최우선에 뒀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은 경북도, 경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수출국인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을 들고 나오면서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초과이익의 공유와 반도체 시설 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아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충격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8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 의제로 반도체를 다룰 예정이어서 회담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육성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주관 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제안 신청서만 접수한 가운데 이후 진행될 로드맵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큰 틀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연내 전국에 최대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만 공개적으로 밝혔을 뿐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가장 먼저 뛰어든 광주시는 ‘AI(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 등에, 전남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전력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선욱기자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년 26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유국선 (651110-1629723)
최 후 주 소 :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49-7
위 망 유국선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3월 14일
공 고 인 : 유다훈, 유성훈.
주 소 : 광주 북구 월동로 70-15, 203호(두암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3월 9일
공 고 기 간 : 2023. 3. 14 ~ 2023. 5. 14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분기 고소득층 240,833원
4분기 125,531원
3분기 79,147원
2분기 48,103원
1분기 저소득층 26,697원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원은 근무 시간(2)에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위급 상황으로 긴급과 근무자 모두 행복해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